

하루를 시작하며



권 주희
스튜디오126 대표·독립기획자

청춘의 봄을 위해

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3월에는 비로소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 내가 운영하는 시각예술 기반의 '대안공간'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다. 대안공간이란, 주류에서 담지 못하는 비주류의 예술가, 실험적인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하는 공간이며 신진 및 청년 작가와 호흡을 맞추는 일이 많다. 공모나 섭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개인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경제적으로는 거의 이익이 없는

일이고, 5년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덕분인지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 사업과 지원 제도에 관한 자문, 심의와 같은 일정이 증가한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도내의 공모전 심사를 맡았고, 청년 사업 연간 계획을 위한 여러 자문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자리에서 종종 '요즘 청년 예술가는 너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대학교나 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진 작가를 현장에서 마주하는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세대가 가진 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 시대를 겪어내는 청년들은 나름의 고충을 떠안게 된다.

물론, 내가 신진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현재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 제도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무급으로 인턴 시절을 보냈던 나는

신진 작가 공모전의 운영을 담당하며 처음으로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부여받았다. 그 시절, 같은 도래의 신진 작가들과 밀접하게 호흡하며 모이고 흠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작가 지원 제도는 변화 과정 중에 있었고, 무엇보다 생계를 위한 직업은 별도로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함께했던 작가 중, 절반은 미술계에서 이름을 볼 수 없게 됐고 일부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행히 몇몇은 중간에 다가설수록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예술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과 비율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고단한 일이다.

이것은 청년 세대의 편안함과 안일함에서 비롯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문화와 사회적 제도가

과거에 비해 발전한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목소리를 내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수정해 나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단, 현재의 청년들을 위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봄을 함의한 청춘(靑春)이란 단어는 청년 세대를 비유하는 데 제격이다. 말 그대로 삶에서 한 단계 넓은 세상으로 옹트는 어린 잎들은 단단한 뿌리와 가지를 통해 성장한다. 큐레이터로서 올해에는 조금 더 많은 가지에서 푸른 잎들이 싹틔기를 희망하며 나와도 마주하기를 기대한다. 봄이 되면, 김연수 시인의 책, '청춘의 문장들'의 인상적인 글귀를 되뇌며 나와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떨어지는 꽃잎 앞에서 배워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사설

골목상권 위협할 대형 유통점 진출 막아야

대형 유통업체가 또다시 제주지역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 우 지역상권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통 대기업체인 신세계는 서귀포시 서흥동 인근에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점포 개점 등록 신청서가 제출됐다. 현재 도내 전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허가가 나면 2019년 도내 첫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한 데 이어 '2호점'이 개점된다. 문제는 2호점의 입지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구역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는 직선거리로 750m 근거리에서 있다. 도내 전통시장보전구역 SSM 진출은 첫 사례다. 대형마트나 SSM이 해당 구역에서 개점하려면 선

결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상권영역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 우 지역상권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형 유통점이 입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상권이 떠안게 된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비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형점의 진출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채무조자 상환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부지기수다. 지역경제 한축인 골목상권 몰락을 초래할 대형점의 진출은 막아야 한다.

타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발본색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몰래 들여와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컫는다. 도내 렌터카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도 하다. 매년 100대 이상씩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서 단속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적발대수는 672대다. 2021년 214대를 비롯 2022년 156대, 2023년 157대, 지난해 145대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맞아 타 지방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이뤄진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다

른 지방으로 이관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 30일 이내에 선적확인 등 차량의 도와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량을 도로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올 2월 말 기준 제주에는 111개 렌터카 업체에서 총 2만978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불법 영업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다. 도내 렌터카 수를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계없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관광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불법 영업 단속과 병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있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주민 결의 '주민자치센터'



강 지연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려한 프로그램을 심의·선정해 보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주민센터 방문이 다소 어려운 신성·다호마을 주민들을 위해 신성마을회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컨설팅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한들,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수강생 모집, 운영 전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주민 결의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내 읍·면·동마다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도두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도내 평생학습 강사들의 프로그램 개설신청을 받은 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별과 연령 및 세대별 관심사를 고

뉴스-in

"에너지·우주·관광 차별화된 경쟁력 갖춰야"

오 지사, 선제 상용화 강조

제주관광 디지털전환 맞춘

○...제주도가 11일 도청 탐라홀에서 '산업전성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주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28회 차 '공부하는 아침강연'을 개최.

이날 강의를 맡은 안현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부총장은 "제주는 에너지, 우주·국방 보안, 데이터산업, 해양·관광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현재 신산업 전략들이 제주만의 독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제주의 필수불가결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오 지사는 "차별화 전략은 누가 먼저 실행하고 상용화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디지털 대전환을 선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 전선희기자

○...제주 관광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관광협회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가 맞춘.

11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주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및 AI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도내 관광사업체들의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촉진하고 협력사업들을 발굴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

도관광협회 강동훈 회장은 "도내 관광사업체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제주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오은지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the 2023 Jeju Local Newspaper Election. It features three candidates: Kim Young-don (Kims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airman), Kim Ik-jun (Gyegw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airman), and Kim Yong-seok (Hosna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airman). The ad includes the slogan '당선' (Election) and '축' (Congratulations). It also lists the names of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airman Kim Seon-woo (38 years old) and Vice-Chairman Su Young (38 years old). Other names mentioned include Kim Seon-woo (36 years old)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Hanra Ilbo's 'Dae-seo' (大勢) campaign. It highlights the newspaper's status as a representative of Jeju and its commitment to providing high-quality news and advertising. Key points include: '한라일보가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Hanra Ilbo stands tall again), '한라일보가 대세다!' (Hanra Ilbo is the trend!),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Wedding, funeral, congratulatory ads published most in the province),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Best newspaper ad effect in Jeju), and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Selected as a priority support recipient for the 2023 Regional Newspaper Development Fund). It also lists several awards: '도내 언론사 최초 '이브' 품질인증 01' (First 'Eve' quality certification among local media), '제주시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Jeju City regional newspaper trustworthiness 1st place),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Jeju region paid circulation 1st place), and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Jeju region circulation 1st place).